

제158호(2017. 12. 12.)

#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허장



목 차  
contents

1. 논의의 배경과 목적 .....	1
2. 일자리 수요와 공급 .....	3
3. 현황의 진단과 일본의 사례 .....	12
4. 정책 방향 제언 .....	17

감 수	이대섭 연구위원	061-820-2169	ldaeseob@krei.re.kr
내용 문의	허장 선임연구위원	061-820-2357	heojang@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158호

###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7. 11.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ISBN | 979-11-6149-063-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요약 Summary

- **일자리 창출은 새 정부의 핵심과제의 하나로서, 농림업, 농촌개발 ODA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100대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등 법령과 국가계획에서도 전문인력 양성을 요구하고 있음.
- **공공부문에서 ODA사업을 수행하는 농촌진흥청과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의 경우, 연구원, 연수생, 영농 전문가 및 해외인턴 등의 형태로 인력을 고용하거나 교육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센터에서 농과계 대학생을 활용함.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영농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함.
- **공공기관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은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자문단, 봉사단 등의 사업을 운영함.**
  - KOICA는 월드프렌즈 자문단,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등을 통해 경력자 및 청년을 해외에 파견하며, 자체 보유한 ODA교육원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있음.
  - EDCF는 청년인턴 과정을 운영하며, 수출입은행 신규직원 채용으로 연계하기도 함.
- **대학 및 민간연구소, 민간 컨설팅업체 등 국제농업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은 주로 소규모 사업에 몰려 있음.**
  -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보유한 인적 자원도 소규모로,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참여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음.
- **NGO들은 전문가보다는 활동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장기적 안목에서 경력 사다리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가 어려움.**
- **일 자리를 희망하는 인력이 배출되는 대학, 대학원의 관련학과는 최근 크게 늘어나 2017년 현재 156개로 나타났음.**
- **이러한 현황에 대한 진단과 일본의 민간기업 및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사례에 대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정책의 대상을 기준으로 청년인력, 은퇴·비상근 전문가 그룹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경력 관리와 현장전문가로의 육성, 후자는 기존 ODA사업에서의 컨설턴트로 적극 활용함.
  - ODA에서의 민간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일자리의 풀(pool)을 확장함.
  - 분야, 업무(기능), 지역(권역) 전문성, 즉 ‘삼각역량’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 시행함.
  - 인력의 수요, 공급을 연결하는 플랫폼(가칭 ‘인재복덕방’)을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확대에 기여함.



# 01 | 논의의 배경과 목적

일 자리를 창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국제개발협력이 새 정부의 주요 목표

## 1.1. 배경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될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그 가운데 개발협력과 관련된 과제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를 선정하였다.
- 동 과제에서 개발협력 혹은 ODA와 관련이 있는 목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표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및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추진체계 강화”
  - 주요내용 :
    - (일자리·국익 기여 개발원조)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및 글로벌 인재양성 확대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여, ODA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프라 사업 등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익 기여
    -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 유·무상 간 전략적 연계,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 및 연계성 강화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는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이행
-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를 모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ODA 역시 국내 일자리 창출과 더욱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상미 2017).
- 한편, 2014년에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관련조항에서는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제16조 1~4항).
- 2015년에 발표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은 ODA 전문가 자격 검정제도 개선 등을 통한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대학원 개발 분야 전공 세분화 등 인력 양성 기반 마련 등을 개선방안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 1.2. 목적

- 이 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관련조항과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그리고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개발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ODA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정과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청년과 은퇴(예정) 전문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 또한 이 글은 국제개발협력, ODA 전체 분야보다는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현황과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농업분야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국내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개도국에 대한 농업분야 발전을 지원하고 해외자원 개발에 우리의 전문 인력과 청년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선진 농업기술 이전과 함께 민간의 해외사업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02 | 일자리 수요와 공급

공공·민간기관의 일자리 수요와 대학 관련학과로부터의 인력 공급 간의 간극은?

### 2.1. 공공부문 현황

□ 공공부문에서 ODA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기관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교육, 연수활동을 하는 곳은 농촌진흥청과 해외농업개발협회가 대표적이다.

#### □ 농촌진흥청의 KOPIA 연구원 및 연수생

○ 농촌진흥청은 20개국에 설치되어 있는 해외농업기술센터(KOPIA)에 반기별로 30~40명의 연구원, 연수생을 선발, 파견하고 있다(<http://www.rda.go.kr/board/board.do>).

- 연구원은 KOPIA 센터의 농업기술 협력사업을 지원하며, ① KOPIA 센터별 협력사업에 참여하여 전공 관련 실습과제 수행, ② 현지 취업연계 프로그램 참여, ③ 주재국의 농업기술 정보 분석, ④ KOPIA 연수생 연수 훈련 프로그램 관리 지원, ⑤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 연수생은 해외농업기술사업 현장학습을 통한 전공능력 배양 연수가 주 업무로, ① 해외농업 기술개발사업(KOPIA) 농업분야 연수과제 수행, ② 주재국의 농업기술 정보 분석, ③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 연구원, 연수생 모두 농과계 대학 졸업 혹은 재학생이어야 응시할 수 있다.

〈표 1〉 농촌진흥청 KOPIA 연구원 및 연수생 파견계획(2018 상반기)

대륙	파견국가 (지역)	연구원(18명)		연수생 (18명)	합계
		1년 이상	1년 미만		
합 계		12	6	18	36
아시아	베트남 (하노이)	1		1	17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1		1	
	미얀마 (네피도)	1		1	
	캄보디아 (프놈펜)	1		1	
	필리핀 (무뇨스)			1	
	스리랑카 (캔디)	1	1		
	태국 (방콕)		1	1	
	몽골 (울란바토르)		1	1	
라오스 (비엔티안)	1		1		

(계속)

대륙	파견국가 (지역)	연구원(18명)		연수생 (18명)	합계
		1년 이상	1년 미만		
아프리카	케냐(무구과)		1	1	11
	알제리(알제)		2(통역 1)	1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			1	
	우간다(캄팔라)	1		1	
	세네갈(다카르)			1	
	짐바브웨(하라레)	1		1	
중·남미	파라과이(카쿠페)	1		1	8
	볼리비아(코차밤바)			1	
	에콰도르(키토)	1			
	도미니카(산토도밍고)	1		1	
	니카라과(마나과)	1		1	

#### □ 사단법인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의 인력양성교육 사업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는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우리나라 식량안보 확보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발전시키고, 관련 사업자의 권익신장,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12년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http://www.oads.or.kr>).
- 이 협회에서는 주요사업의 하나로 인력양성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해외농업 진출을 희망하는 영농인, 기업인, 학생 등이 교육의 대상이다.
- 이 가운데 국내과정으로 실시되는 기초인력 양성교육은 4박 5일 합숙 교육이며, ▲해외농업개발의 배경, ▲해외농업개발 현황과 진출 사례, ▲해외농업개발 유관기관 견학을 통한 농산물 물류와 검역, ▲대규모 영농 사업화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전문가 강의와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7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 영농전문가 교육은 신규진출 예비자에 대한 국외과정 교육이며, ▲시장환경, 진출사례 전략, 농업현황, 유망 진출 작물 등, ▲진출사례와 현지영농 전략, 선진기술벤치마킹과 현지화 요령 등의 과정이 있다. 캄보디아, 베트남, 러시아, 미얀마 등에서의 현지연수도 포함되며, 숙식비 등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한다.
  - 2015년에 33명, 2016년에 41명이 수료하였다.
- 해외인턴 사업은 ▲해외농업개발 추진사업자의 수요와 일치하는 해외농업 전문인재 채용 및 양성지원, ▲인턴과정 수료 후 관련 기업 연계 취업을 통한 고용안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며, 대상은 채용일 기준 만 20세 이상,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에서 근무 가능한 자로서 학력에 제한이 없다.



- 그러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1명의 인턴을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2016년의 경우 인턴 선발인원이 4명 내외에 불과하여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그림 1〉 해외농업개발협회 해외인턴 운영절차



□ 비농업 공공기관으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이 시행하는 교육훈련 과정과 이를 통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다.

□ 월드 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

○ 정부는 2009년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해외 봉사단 파견 사업을 통합브랜드인 ‘World Friends Korea’라는 이름 아래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교부, 교육부 등 5개 부처에서 소속, 유관기관을 통해 파견하던 7개 봉사단을 하나의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KOICA의 월드 프렌즈 KOICA 자문단(‘World Friends Advisors’), 해외봉사단 사업(‘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살펴본다.

〈그림 2〉 월드 프렌즈 코리아 사업의 참가기관과 사업



자료: www.koica.go.kr(2017년 8월 27일 검색).

- 월드 프렌즈 KOICA 자문단은 “국내 퇴직(예정)인력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전수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 및 빈곤퇴치에 기여하고자”하는 목적으로 KOICA가 운영 중이다(<http://www.koica.go.kr>, “2017년 2차 월드프렌즈 KOICA자문단 (17기) (World Friends Advisors) 모집 안내, 2017. 06. 12.”).
  - 대상국의 수요에 입각하여 파견 직종과 대상국별로 인원을 모집하고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으로 파견한다. 현지 활동 평가를 통해 최대 3년(최초 계약기간 포함)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가령, 경영전략 개발 직종에 콜롬비아 보고타시청(사회경제부)에 1년간 1명을 파견하거나 에티오피아 농업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토양 생산성 분야 전문가 1명을 6개월간 파견한다.
  - 2017년도 2차(17기)의 경우 28개 직종, 24개국에 파견될 89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 자격요건은 해당분야 10년 이상 실무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자로서 영어(수원국 공용어) 가능자 등이다. 파견자들에게 지원되는 경비는 주거비를 포함한 현지생활비, 현지 활동 지원비, 왕복항공료(실비), 출국준비금, 재해 보험료 등이다.
- KOICA의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은 교육, 보건의료, 정보통신, 농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단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사업으로, 2년간 활동한다.
  - NGO 해외봉사단과 청년중기봉사단으로 구분되는데 NGO 해외봉사단은 만 19세 이상이 대상이다.
  - 청년중기봉사단은 현장형 인재 양성, 전공연계를 통한 수요 중심의 봉사활동을 위해 국내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2~4년제) 재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자로서 파견기관별 관련 직무 전공자 및 특기자를 파견한다.
  - 2015년까지 교육, 보건, 공공행정, 기술환경 에너지, 농림수산 등의 분야에서 총 13,576명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으로 파견되었다([www.koica.go.kr](http://www.koica.go.kr), 2017. 8. 27. 검색). 2017년에는 총 950명을 42개국에 파견할 계획으로 있다([oda.koica.go.kr](http://oda.koica.go.kr), 2017. 8. 28. 검색).

#### □ KOICA의 ODA교육원

- ODA교육원은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2010년 KOICA에 설립되었다. ODA전문가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교원대상 국제개발협력 직무연수, 초중고생 등 ODA 리더 개발교육 등의 교육, 대학생 대상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무상원조사업 시행기관 사업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등의 연수와 워크숍, 개발협력 관련 자료의 발간 등을 시행하고 있다.
- 2016년 현재 총 54회의 정규교육과정에 1,828명이 수강하였고, ODA 전문가 자격증 시험 및 사후관리 교육 등을 시행하였다.

## □ EDCF 인턴('EDCF 서포터즈')

- EDCF 인턴과정은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34세 이하) EDCF 해외사무소에서 5개월, 본부에서 5개월간 국제개발협력 업무에 관한 실무 경험을 쌓는 과정이다. 이들은 파견된 해당 국가에서 EDCF 사업발굴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고, 현지 주민들과 교류를 통해 개발원조 업무를 체험한다.
- 해외사무소는 베트남, 필리핀, 탄자니아, 캄보디아, 스리랑카, 콜롬비아 등에 소재한다.
- 이 과정을 통해 수출입은행은 우수 인턴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면제 등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우대한다는 방침도 가지고 있다. 즉 총 신입인력용의 20% 내외를 인턴수료자 중에서 채용한다(www.asiae.co.kr, 2017. 8. 28. 검색). 2017년에는 110명의 청년인턴을 모집할 계획이다(http://blog.naver.com/tradepeople/220926248581).

## 2.2. 민간부문 현황

### □ 대학 및 민간연구소, 민간 컨설팅업체

- 농림업 분야의 ODA사업과 관련이 있는 대학과 민간연구소, 민간 컨설팅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체적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1~2014 기간에 농림업과 농촌개발 분야에서 원조사업을 수행하였던 기관들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다(허장 외 2016).
- 2011년 이후 이 분야에서 개도국과의 개발협력 사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기관은 54개이다. 기술원조(기타 기술협력과 전문가, 봉사단 파견) 유형에서는 27개 기관 중 20개 기관(74%)이 정부와 공공기관인 반면, 프로젝트형 원조에는 34개 기관 중 민간부문이 22개 기관(65%)이다.<sup>1)</sup>
- 프로젝트형 사업수행 기관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농림업, 농촌개발 사업의 경우 민간기관이 프로젝트형 원조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나 사업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에 몰려 있다.
  - 한국국제협력단 발주사업에서는 사업수주 금액 상위 12개 기관의 사업 건당 사업비는 227만 달러이며 이들 중 7개가 민간기관이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57개 기관의 사업 건당 사업비는 32만 달러에 불과하며, 이들의 대부분은 민간부문에 속한다.
  -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발주한 사업의 경우를 보면, 사업수주 상위 9개 기관이 평균 248만 달러 어치의 사업을 수행하고 이들 중 5개가 민간기관이다. 나머지 36개 기관은 평균 65만 달러이다.

1) 프로젝트와 기술협력 양쪽 유형을 다 수행한 기관도 있어서 합계는 54개를 넘는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부문은 대학 및 민간연구소, 협회, 재단법인 등이며, 공공부문은 정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등이다.

- 아울러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사업비 규모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문 9곳의 조직 및 인적 역량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주요 민간부문 수행기관의 조직, 인적 역량 현황

번호	전담 조직	인력 및 경력		
		박사	석사	학사
1	무	10년(1)	5년(1)	5년(1)
2	유	25년(1) 15년(1)	7년(1) 6년(1)	3년(4) 2년(1) 1년(2)
3	유	39년6월(1) 39년(1) 30년(1)	12명	3명
4	유	8년3월(1)	6년8월(1) 3년1월(1)	
5	유	20년(1)	15년(1)	2년(1)
6	유	5년(2) 3년(1)	5년(2) 4년(1)	(8)
7	유	51년(1) 38년(1) 32년(1) 18년(1)	3년8월(1)	(3)
8	유	박사 등 다수 담당인력 보유		
9	유	10년(1) 9년(1) 5년(1)	4년(1) 3년(1)	

주: 괄호 안은 인원수임.

자료: 허장 외(2016).

- 농림업, 농촌개발 분야 프로젝트 사업을 대규모로 수행하고 있는 민간업체라고 하더라도 일부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수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3, 8번 기관은 비농림업 분야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며, 6번 기관은 농촌개발을 포함하여 지역개발 일반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요컨대, 농림업, 농촌개발 분야의 개발협력 생태계에서 대학, 민간연구소, 민간 컨설팅업체 등 민간부문은 소규모 사업에 몰려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관련 인원도 소수에 불과한 형편으로, 개발협력 사업이 늘어나고 민간부문의 참여 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 NGOs

- 개발협력 NGO는 매우 다양한데,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는 이들 기관을 회원으로 둔 협의체 조직이다. 1999년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2012년 8월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2016년 말 현재 130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www.ngokcoc.or.kr](http://www.ngokcoc.or.kr), 2017. 8. 29. 검색).
- KCOC에서 시행하는 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국제개발이해교육)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이해와 기본지식 습득이 목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개발사업의 현장이야기, ▲효과적인 개발사업을 위한 원칙, ▲개발NGO의 윤리성과 책무성, ▲기타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이슈 등을 교육한다.

- (PCM 기본교육) PCM(Project Cycle Management) 기본교육은 사업수행의 원칙과 절차를 배우고 각 사업수행단계별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습득하고자 개설된 기본교육 과정이다. ▲ 개발사업의 원칙과 철학, ▲프로젝트 단계별 원칙과 방법론(지역조사, 사업기획, 실행 및 모니터링, 평가) 등을 교육한다.
  - (지역조사 워크숍) 효과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집중적으로 실습하며, ▲지역조사(assessment)의 기본 원칙설명 및 사례분석, ▲ 다양한 방법론을 통한 사업조사 실습, ▲조사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교육한다.
  - 이 밖에 PCM 필드리서치, 실무자 역량강화 현지교육, 분야별 심화교육 파견프로그램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다.
- NGOs는 개도국 현장에서 지역주민 등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축적된 경험과 기능을 갖춘 전문가보다는 사명과 책무성에 기반한 활동가 위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력 사다리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확대를 위한 대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 □ 외교부 주관 유엔자원봉사단(UN Volunteers: UNV) 및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JPO)

- UNV는 1970년 12월 유엔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제기구(UNDP 산하)로서,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유지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다양한 국제기구 현장사무소에 봉사단원을 파견하여 개발지원 및 인도적 구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외교부 보도자료 2017. 3. 14.). 현재 총 153개국 출신 자원봉사단원 6,796명이 122개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이다.
- 우리나라는 외교부 주관으로, 젊은 인재들이 국제기구 근무를 통해 국제 평화·안보 및 개발과 같은 다양한 국제 이슈에 직접 기여하고, 파견 종료 후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2017년 3월까지 200여 명의 UNV 봉사단원을 파견해왔다. 2013년부터 파견인원이 확대되어 2013년 15명, 2014~2016년간 매년 25명을 파견하였으며, 2017년에는 50명의 UNV 봉사단원을 파견할 계획이다.
- 전문봉사단(25세 이상 관련 경력 보유자)과 청년봉사단(23~29세)으로 분류되며, UNV 파견을 통해 6개월~2년간의 봉사활동을 마친 인재들 중에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로 선발되거나, 관련 국제기구에 채용되기도 한다.

- JPO는 국제기구 정규직 진출에 효과적인 제도로서, 외교부는 1996년 이래 총 143명의 JPO를 국제기구에 파견해 왔으며, 파견 기간이 종료된 JPO 중 약 80%가 국제기구 정규직으로 진출하였다.
- UNV는 청년들이 국제기구 경험을 쌓고 향후 이 분야에서 취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긴 하나 자원봉사이므로 새로운 일자리로 볼 수는 없다. JPO는 현재로서는 그 선발 규모가 작아 충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3〉 외교부의 UNV, JPO 파견 프로그램

구분	파견대상	선발규모 (2017)	파견 직위	파견지	파견기간
JPO	만 32세 이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10명	P2-P3급 전문직 (정규 직원)	국제기구 본부 및 지역사무소	2년
UNV	청년: 만 23~29세 전문: 만 25세 이상 ※ 직위별 학력 및 경력요건 상이	청년: 30명 전문: 20명	자원봉사단	유엔 DPKO, UNDP 등 국제기구 현장사무소	1년 (연장 가능)

### 2.3. 잠재적 취업희망 인력

- 청년 혹은 경력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력 수요의 측면에 대응한 인력 공급의 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학, 대학원 내 국제개발, 국제협력 관련 학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http://www.academyinfo.go.kr/>, 세부내용은 부록 참조).
  - 교육부가 대학정보공시센터를 통해 운영하는 ‘대학알리미’ 정보사이트에서 인문·사회계열(대계열), 사회과학과 인문학(중계열), 국제학과 국제지역학(소계열)에 속한 대학, 대학원의 학과 중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비개도국과 북한, 군사, 안보, 관세, 통상, 물류 등과 관련된 학과는 제외하고 현황을 정리하였다.
  - 국제(협력)학, 국제지역학과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대학, 대학원은 모두 156개로 파악되었다. 이 가운데 72개 학과는 대학(사이버대학, 산업대학 포함)에, 82개 학과는 대학원, 2개 학과는 대학원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에 각각 38개, 23개, 23개가 설치되어 있다. 72개 대학은 학사학위 수여기관이고 나머지는 석사와 박사학위 수여기관이다.
  - 33개 학과는 국립대(법인 포함)와 공립대, 123개는 사립대에 설치되어 있다. 학위연한으로 볼 때 4년제가 77개 학과, 3년제가 5개, 2년 반이 14개, 그리고 2년제가 60개 학과이다.

〈표 4〉 국제개발협력 관련학과의 분포

단위: 개

구분	대학 구분	학교 구분	설립 구분	수업 연한
학과 수	대학 72 대학원 82 대학원대학 2	대학교 67	국립 24 법인 6 공립 3 사립 123	2년 60
		사이버대학 1 산업대학 4 일반대학원 38 전문대학원 23 특수대학원 23		2.5년 14 3년 5 4년 77
계	156			

자료: <http://www.academyinfo.go.kr>(2017. 11. 22.)에서 정리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최근 크게 늘어남에 따라 대학과 대학원의 관련학과 수도 많아졌고 세부 전공분야, 교육 및 연구대상 권역·국가도 매우 다양해졌다. 그러나 농림업 등 산업별로 세분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림업 분야를 포함하여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취업희망 인원의 정확한 추정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156개 학과로부터 배출되는 인력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잠재적 취업희망 인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 이외에도 다른 유사 학과를 통해 배출되는 인력들도 있을 것이다.

## 03 | 현황의 진단과 일본의 사례

일자리의 수와 질에서의 큰 격차, 일본의 민간업체와 JICA의 사례는?

### 3.1. 진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일자리의 공급과 수요에는 많은 격차가 있다.
  - 공공부문은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개발협회, 한국국제협력단, 대외경제협력기금, 외교부 등에서 공급하는 일자리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 대학, 연구소, 민간 컨설팅업체 등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이들이 수행하는 개발협력 사업의 수와 규모에 비례할 것이나, 이들 기관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역량이 있는 중대형 컨설팅업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ODA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지와 관심을 갖기에는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다.
-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필요로 하는 인력의 질(quality)에서도 인력 수요 측과 공급 측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점이다. 개발협력사업에 필요한 인적 역량은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황혜신(2015)은 개발협력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수가 부족하며, 현재로서는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져 커리어를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현장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인력의 질적 측면에 관해서는 분야, 권역, 기능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허장 외 2016)
  - 첫째, 분야의 측면에서는 농림업과 농촌개발 분야를 전공으로 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식량자급을 이룩하고 농촌의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경험을 쌓고, 여러 가지 상황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해 온 인력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인력의 노하우와 경험이 개도국의 다양한 자연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농업, 농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개도국의 농업,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 둘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남미, 태평양 도서지역 등 개도국의 권역별 특성이 사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전문성을 갖춘 인적 역량도 필요하다. 지역, 권역에 특화된 개발협력 전공학과가 최근 생겨나고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보통 사업내용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지 혹은 해당국가나



권역에 대한 전문성은 취약하다(박복영 외 2015: 81). 중남미나 아프리카에서의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영어 이외의 언어가 원활한 인적 역량은 크게 모자라는 형편이다.

- 셋째,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자체가 오래되지 않은 현실에서 분야별 전문가는 개발협력에 대한 기초적 이해, 사업추진 및 관리에서의 일반적 절차,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와 관행, 그리고 개발협력 관련 국제적 흐름과 원칙 등에 관해 이해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는 권역 측면과 마찬가지로 농림업, 농촌개발 분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 3.2. 일본의 사례<sup>2)</sup>

#### □ 개요

- 일본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민간 컨설팅업체가 활발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오랜 역사에 많은 전문인력을 갖춘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들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분야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다.
- 아울러 개발협력 전담기관인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인력양성과 확보를 위한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 NTC 인터내셔널 사례

- 이 회사의 모회사(NTC 그룹)는 1969년 설립되었고 2008년에 국제사업 담당기관으로 자본금 6,000만 엔 규모로 발족하였다. 약 100명의 종업원이 있으며 그중 90명이 해외사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 태국 방콕, 필리핀 일로일로 주, 캐나다 퀘벡 등에 해외사무소가 있고 사업분야는 평화구축, 수자원 개발, 지역개발, 환경관리, 연수 프로그램, 농업 및 농촌개발(식량자급,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촌사회 활성화 등), 에너지개발 등 일곱 가지이다. 농촌개발은 평화구축과 더불어 핵심 분야이다(농업분야의 사업이 70%가량을 차지).
- 대부분 JICA가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여 시행한다. 서아프리카의 불어권 국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의 사업경험이 누적되면서 JICA의 사업 수주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2) 이하 일본의 사례는 허장 외(2016)에서 발췌, 요약한 것이다.

- 자체 인적 역량 육성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지만 입사 후 1~2년은 내근을 통해 훈련을 받고 3년 차 정도에 해외로 부임하여 연간 3~4개월 해외사업에 참여한다. 5년차 정도 되면 연간 절반 정도를 해외에서 근무한다고 한다.
- 전체 직원 90명 가운데 30명 정도는 JICA의 해외봉사 경험이 있고, 20~30명은 농업 관련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다.

#### □ 니폰코에이(日本共營) 사례

- 니폰코에이 그룹(Nippon Koei Group)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엔지니어링 컨설턴트 회사이다. 1946년 설립된 이래 전 세계 145개국에서 5,000여 건의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였다. 자본금 약 74억 엔의 재정기반을 갖추고 있다.
-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수는 2015년 말 현재 1,279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656명)은 토목 엔지니어이다. 농업전공은 53명이다.
- 해외 사무소는 아시아에 12곳, 아프리카 3곳, 중동 및 북아프리카 5곳, 중남미 6곳에 있다.
- 사업분야는 에너지 인프라 수자원 및 위생, 도시개발, 건축·산업·관광개발, 교통 인프라, 환경·재난관리 및 농업, 공공부문 개발 등이다.
- 자체 인적 역량 육성 프로그램으로는 직장 내 훈련(OJT), 즉 진행 중인 사업에 참여하면서 훈련을 하며, 5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 수준이 된다고 한다. 아울러 회사 내 인력 개발(HRD)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소규모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 JICA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 JICA는 늘어나는 인적자원에의 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인적자원 충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시행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인적자원의 총원과 교육훈련

사업명/목적	참가자 수(2015. 3. 현재)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위한 종합적인 경력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	
‘PARTNER’	국제협력의 인력 자원으로 등록한 인원 10,616명
인적자원 훈련	
제휴 전문가 프로그램(일정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청년 등에 대한 현장교육)	신규 8명, 계속 14명
2. 전문가 양성을 위한 맞춤형 훈련	7개 강좌 14명
3. 인턴십(대학생 등 1~4개월 국내, 해외 사무소 연수)	40명
1) 개방형(외과의사 포함)	59명
2) 개발 컨설턴트형	35명
4. 기타 훈련 프로그램	
1) JICA 전문가 파견 사전 훈련	연 12회, 317명
2) 역량제고 훈련	총 18회 323명
3) UNHCR과 공동 안전관리 훈련	2개 강좌 68명
4) 장기 해외훈련(해외대학 석사과정)	4명 선발
5) 불어 교육	9명
6) 스페인어 교육	2명
7) 토속어 교육	161명
8) 기타	JICA 직원 파견 사전 훈련 등
인적자원의 확보	
JICA 시니어 자문관	74명
2. 특별 자문관	27명

자료: JICA(2015), JICA 2015 Annual Report, 124쪽.

#### □ JICA의 ‘PARTNER’ 플랫폼

- JICA는 ‘파트너(PARTNER)’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적 자원들의 커리어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http://partner.jica.go.jp>). 이 사이트는 JICA의 인적자원부가 운영한다. 여기에는 JICA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정부기관, NPO/NOGs, 컨설팅 업체와 기타 민간회사 등으로부터의 수많은 정보들이 탑재되어 있다.
- 현재 1만 명이 넘는 ‘국제협력 인적자원’들이 등록되어 있고, 2014년에는 3,323개의 구인정보와 1,711개의 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 정보가 실리기도 했다(JICA 2015: 125).

<그림 3> JICA의 'PARTNER' 웹사이트 초기 화면



자료: <http://partner.jica.go.jp>(접속일: 2016. 10. 3.)

## 04 | 정책 방향 제언

정책 대상별 인력 육성, 민간 역할 강화, '삼각역량' 개발, 수요-공급 연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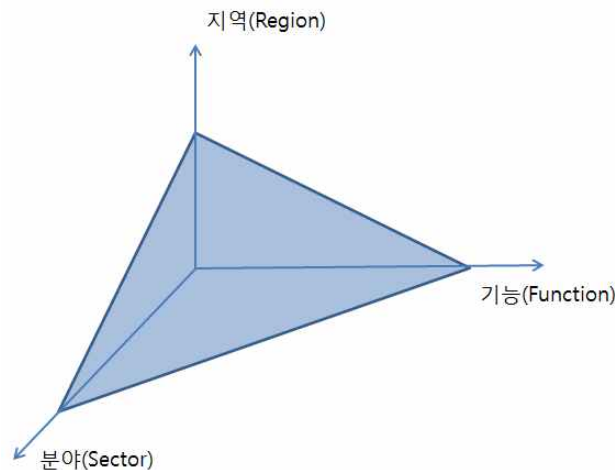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농림업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정책의 대상을 기준으로 청년인력, 은퇴 및 비상근 전문가 그룹으로 구분한다.
  - 청년인력의 경우 일회성 활동이 아닌 ODA 생태계에서의 지속적인 참여와 경력관리(career plan, career ladder)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래의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 부족한 현장전문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경력관리와 유지, 확장을 통한 현장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 개인의 다양한 스펙 쌓기 수준을 넘어 이 분야로 본인의 장래 인생을 설계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 농업기술·지식을 갖춘 은퇴 및 비상근 전문가의 경우에는 개도국 농업·농촌개발을 위한 ODA 사업에서의 컨설턴트로 적극 활용한다.
    - 이들은 개발컨설팅, 기술협력, 역량개발 지원 등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 사업뿐만 아니라 프로젝트형 사업에서의 현지 파견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다.
    - 본인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는 중단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ODA에서의 민간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일자리의 풀을 확장하여야 한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ODA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는 농림업 분야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 분야의 공통의 현상으로, 지원주체(donor)별 ODA 지원 누적액 비율을 2006~2015년 기준으로 보면 공공부문이 87%로, OECD/DAC 회원국의 50%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한다(OECD/DAC Statistics: 이효정, 2017에서 재인용). 선진국의 경우 공공부문 이외에 NGO-민간사회, 다자기구가 각각 15%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2%, 9%와 대비된다.
    - 민간 컨설팅업체를 비롯하여 NGO 등은 궁극적으로 다량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여야 할 주체이나, 개발협력사업에의 참여 기회가 부족한 현실에서는 일자리 확대에 제약이 있다. 아울러 민간 NGOs는 업무 불안정, 전문성 부족, 처우 문제, 과다 업무 등 업무의 강도가 높고 보수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황혜신 2015: 151).

- 한국국제협력단, 농어촌공사 등 공공부문이 관리하는 개발협력 사업에 민간컨설팅 업체가 다수 응찰하여 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민간부문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중장기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 NGOs는 현장 밀착형 활동에서의 강점을 살려 개발협력 사업의 초기 기획단계에 참여하거나 혹은 사후관리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종료 후 일정기간 NGOs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한다면 단기적 성과(outcome)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과(impact)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셋째, 전문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국제개발협력 관련 인력의 전문성은 분야, 업무(기능), 지역(권역) 등으로 나뉜다(황혜신 2015; 전승훈 외 2012; 박복영 외 2015). 전문성은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박복영 외(2015)는 이를 '삼각역량'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 분야 전문성(sectoral specialty)은 관련 분야에서의 학문적 혹은 실무적 경험을 갖춘 기술 전문가(technical specialist)의 전문적 역량을 말한다. 지역 전문성(regional specialty)은 개도국의 국별 혹은 권역별 여건과 개발 관련 이슈에 밝은 전문가의 역량이다. 업무 혹은 기능 전문성(functional specialty)은 프로젝트의 기획, 운영과 관리, 아울러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 등의 프로세스와 관련한 역량을 말한다(전승훈 외 2012).
- 따라서 인력 양성은 농업 혹은 농촌개발이라고 하는 분야의 전문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림 4〉 삼각역량 모델



자료: 박복영 외(2015: 162).

-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개의 분야를 연결하는 전문가 연수 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과 섹터 전문가를 위한 개발협력 관련 전문가 연수과정을 개설하거나, 개발협력 전공자에게 특정 지역의 특정 분야(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의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 국제학과, 국제대학원 등 대학(원)에서도 이러한 기능, 권역, 분야 전문성의 함양에 관한 교육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넷째,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일자리의 창출과 확대에 기여한다.
-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은 새로운 인력의 활용이며, 이를 연결하는 메커니즘을 활성화함으로써 인력이 원활하게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다.
  - KOICA, EDCF는 각각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가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으나, 열람권 한이 외부에는 주어지지 않는다(황혜신 2015: 245-247). 농식품부의 경우에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농업분야 개발협력 인력 DB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역시 농식품부 소속 및 유관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서 외부에 개방되어 있지 않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인력 정보의 공유체계 구축 및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제한적으로만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 분야별 전문인력의 효율적 관리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 전문인력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결국 정보의 활용이므로, 이러한 정보교환 사이트에서 전문가 검색을 통해 전문인력의 수요-공급을 매칭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 국제개발협력 관련학과 현황

대학 구분	학교 구분	설립 구분	지역	학교명	학부, 학과(전공)명	수업연한	학위과정
대학	대학교	사립	경기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경기	강남대학교	글로벌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충북	건국대학교(글로벌)	국제지역문화학전공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경기	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국제관계학과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서울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4년	학사
대학	사이버대학(대학)	사립	서울	경희사이버대학교	NGO·시민정치전공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대구	계명대학교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대구	계명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전공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서울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서울	광운대학교	국제지역전공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서울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서울	국민대학교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서울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충남	단국대학교	중동학과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경북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경기	대진대학교	국제지역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부산	동서대학교	International Studies과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국립	부산	부경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전공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국립	부산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국립	부산	부경대학교	국제학전공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국립	부산	부산대학교	국제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국립	부산	부산대학교	Global Studies Program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법인	서울	서울대학교	연계전공 라틴아메리카학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공립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빅데이터분석학전공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공립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서울	서울여자대학교	국제학전공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충남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경기	성결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경기	수원대학교	국제개발협력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충남	순천향대학교	글로벌자유전공학과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부산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전공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부산	신라대학교	국제지역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경기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서울	연세대학교	아시아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서울	연세대학교	아시아학전공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학전공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서울	연세대학교	지속개발협력전공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강원	연세대학교(원주)	East Asian Economy and Business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강원	연세대학교(원주)	East Asian Politics and Culture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강원	연세대학교(원주)	국제관계학전공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경북	영남대학교	국제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경북	영남대학교	국제학전공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부산	영산대학교	글로벌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부산	영산대학교	아세안지역전공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부산	영산대학교	인도지역전공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부산	영산대학교	한-베지역통상전공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울산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전공	4년	학사



(계속)

대학 구분	학교 구분	설립 구분	지역	학교명	학부, 학과(전공)명	수업연한	학위과정
대학	대학교	사립	울산	울산대학교	국제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전공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국립	전남	전남대학교	국제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국립	전북	전북대학교	지미카터국제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국립	경남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4년	학사
대학	산업대학	사립	충남	청운대학교	베트남학과	4년	학사
대학	산업대학	사립	충남	청운대학교	베트남학과	4년	학사
대학	산업대학	사립	충남	청운대학교	베트남학과	4년	학사
대학	산업대학	사립	충남	청운대학교	베트남학과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전남	초당대학교	국제학과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경기	평택대학교	국제지역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학과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전공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강원	한림대학교	국제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강원	한림대학교	동북아시아지역전공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충남	한서대학교	국제협력전공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경기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경기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전공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서울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4년	학사
대학	대학교	사립	광주	호남대학교	국제학부	4년	학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일반대학원	국제학과	4년	통합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경기	가톨릭대학교대학원	국제학과	2년	석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국립	경남	경상대학교대학원	국제관계학과	4년	통합
대학원	일반대학원	국립	경남	경상대학교대학원	해외지역학과(학과간협동과정)	2년	석사
대학원	특수대학원	사립	서울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글로벌거버넌스학과	2.5년	석사
대학원	전문대학원	사립	경기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2년	석사, 박사
대학원	전문대학원	사립	경기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과	2년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서울	경희대학교대학원	국제학과	2년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대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국제지역학과	2년	석사
대학원	전문대학원	사립	서울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2년	석사, 박사
대학원	특수대학원	사립	서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과	2.5년	석사
대학원	특수대학원	사립	서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아태지역연구학과	2.5년	석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서울	광운대학교대학원	국제지역학과	2년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서울	국민대학교대학원	국제지역학과	2.5년	통합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경기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2년	석사, 박사
대학원	특수대학원	사립	경북	동국대학교사회과학대학원(경)	국제관계학과	2.5년	석사
대학원	전문대학원	사립	부산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2년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경기	명지대학교 대학원	아랍지역학과	3년	석사, 박사

(계속)

대학 구분	학교 구분	설립 구분	지역	학교명	학부, 학과(전공)명	수업연한	학위과정
대학원	특수대학원	국립	부산	부경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2년	석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국립	부산	부경대학교대학원	국제지역학과	2년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국립	부산	부경대학교대학원	글로벌지역학협동과정	2년	석사, 박사
대학원	전문대학원	국립	부산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지역·협력전공	2년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국립	부산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NGO학전공	2년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대학원	글로벌지역학과	2년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대학원	동남아시아학과	2년	석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대학원	러시아·중아시아·인도지역학과	2년	석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대학원	중남미지역학과	2년	석사
대학원	전문대학원	사립	서울	서강대학교국제대학원	국제관계전공	2년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서울	서강대학교대학원	동남아시아학협동과정	2년	석사
대학원	전문대학원	법인	서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2년	석사, 박사
대학원	전문대학원	법인	서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국제지역학전공)	2년	석사
대학원	전문대학원	법인	서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국제협력전공)	2년	석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법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학과	2년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법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글로벌교육협력전공협동과정	2년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공립	서울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국제관계학과	2년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서울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2년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충남	선문대학교대학원	국제관계학과	4년	통합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서울	성공회대학교대학원	국제문화연구학과	2년	석사, 박사
대학원	특수대학원	사립	서울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2.5년	석사
대학원	특수대학원	사립	서울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아시아학과	2.5년	석사
대학원	특수대학원	사립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국제홍보및공공외교전공	2.5년	석사
대학원	특수대학원	사립	충남	순천향대학교 기술경영행정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2.5년	석사
대학원	특수대학원	사립	충남	순천향대학교 기술경영행정대학원	국제학과	2.5년	석사
대학원	특수대학원	사립	경기	아주대학교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2년	석사
대학원	전문대학원	사립	서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전공	2년	석사
대학원	전문대학원	사립	서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전공	2년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3년	통합
대학원	특수대학원	사립	강원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지역개발역량강화전공	2년	석사
대학원	특수대학원	사립	강원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지역공동체개발지도자양성전공	2년	석사
대학원	전문대학원	사립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2년	통합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지역연구협동과정	2년	통합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인천	인하대학교대학원	글로벌e거버넌스전공(학과간협동과정)	2년	통합
대학원	일반대학원	국립	광주	전남대학교대학원	디아스포라학협동과정	2년	석사, 박사

(계속)

대학 구분	학교 구분	설립 구분	지역	학교명	학부, 학과(전공)명	수업연한	학위과정
대학원	일반대학원	국립	전북	전북대학교 대학원	프랑스·아프리카학과	2년	석사, 박사
대학원	특수대학원	사립	전북	전주대학교행정대학원	글로벌창의학과	2.5년	석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광주	조선대학교대학원	영사행정학과	4년	통합
대학원	전문대학원	사립	서울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2년	석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동북아학과	4년	통합
대학원	일반대학원	국립	경남	창원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2년	석사
대학원	특수대학원	국립	경남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협력학과	2.5년	석사
대학원	특수대학원	사립	충남	청운대학교 대학원	베트남학과	2년	석사
대학원	특수대학원	사립	충남	청운대학교 대학원	베트남학과	2년	석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국립	대전	충남대학교대학원	국제지역학과	2년	박사
대학원	특수대학원	국립	대전	충남대학교평화안보대학원	국제학과	2년	석사
대학원	특수대학원	국립	경기	한경대학교 국제개발협력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2.5년	석사
대학원	특수대학원	국립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2.5년	석사
대학원	전문대학원	사립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국제개발학과	2년	석사
대학원	전문대학원	사립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국제관계학과	2년	박사
대학원	전문대학원	사립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국제지역학과	3년	박사, 석박사 통합
대학원	전문대학원	사립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2년	석사
대학원	전문대학원	사립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유엔평화학과	2년	석사
대학원	전문대학원	사립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인도아세안학과	2년	석사
대학원	전문대학원	사립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	2년	석사
대학원	전문대학원	사립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2년	석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관계학과	3년	통합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터키중앙아시아몽골학과	3년	통합
대학원	일반대학원	국립	부산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국제지역문화학과	2년	석사, 박사
대학원	특수대학원	사립	경북	한동대학교 국제개발협력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2년	석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강원	한림대학교대학원	국제학과	2년	석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사립	충남	한서대학교대학원	글로벌국제관계학과	2년	석사, 박사
대학원	전문대학원	사립	서울	한양대학교국제학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2년	석사
대학원	전문대학원	사립	서울	한양대학교국제학대학원	글로벌인텔리전스학과	2년	석사
대학원대학	특수대학원	사립	서울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지역학과	2년	석사
대학원대학	특수대학원	사립	서울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협력학과	2년	석사

주: 학위구분에서 '통합'은 석사,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을 말함.

자료: <http://www.academyinfo.go.kr/>

## 참고문헌

- 박복영 · 곽재성 · 김용빈 · 박지현 · 신정우 · 엄주석 · 유나영. 2015. 『제1차 ODA 기본계획 평가 및 향후과제 연구』. 국무조정실.
- 이상미. 2017. “미국 · 프랑스 · 한국 신정부 출범과 ODA 동향.” 『개발과 이슈』 제30호. 한국국제협력단.
- 이효정. 2017. “농업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민관파트너십 사례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미발간).
- 전승훈 · 조정윤 · 곽재성 · 배성일 · 손성애 · 김형곤. 2012.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연구보고서.
- 허장 · 이대섭 · 최은지 · 안규미. 2016. 『Post-2015 대응 중장기 국제농업개발협력 추진 전략 수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혜신. 2015.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문가 양성 및 활용 제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15. *JICA 2015 Annual Report*.